

# 건설동향

# BRIEF<sub>ing</sub>

## · '24년 국내 지역별 건설 수주

- 2024년 국내 건설수주 공사 지역별 분석
- 2024년 수도권 건설수주 전년 대비 30.9% 증가한 114.4조원 기록
- 2024년 지방 건설수주, 전년 대비 8.6% 감소해 2년 연속 부진
- 내수회복 지연시키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 절실, 공공공사 물량 확보해야

## · '24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276명, 최근 3년간 19.1% 감소

- 고용노동부, '75년부터 발표한 '승인통계' 외에 중대재해에 한정된 '조사통계' 발표('22년 이후)
-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276명, 전체(589명)의 43.8% 차지
- 최근 3년간 341명('22년) → 303명('23년) → 276명('24년)으로 65명 감소
- 50억원 미만 건설사업장 사고사망자 65.6%(181명)로 높은 비중 차지



## '24년 국내 지역별 건설 수주

- 수도권 30.9% 증가한데 반해, 지방은 8.6% 감소해 수도권 쏠림 현상 강화 -

박철한(연구위원 igata99@cerik.re.kr)

### 2024년 국내 건설수주 공사 지역별 분석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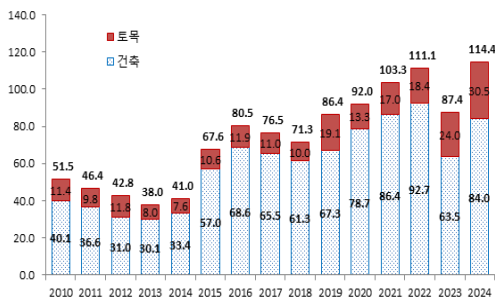
- 통계청의 건설경기동향조사에 의하면 2024년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0.9% 증가하였는데,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수도권은 증가한 반면, 지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(〈그림 1〉 참조).

### 2024년 수도권 건설수주 전년 대비 30.9% 증가한 114.4조원 기록

-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23년에 21.3% 감소해 부진했는데, 2024년에는 토목과 건축 수주가 모두 양호해 전년 대비 30.9% 증가한 114.4조원을 기록, 반등한 모습을 보임(〈그림 1〉 참조).
  - 수도권의 토목 수주는 2023년에 전년 대비 30.5% 증가했는데, 2024년에도 26.9% 증가한 30.5조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임.
  - 건축 수주의 경우 32.4% 증가한 84.0조원을 기록해 2023년(-31.5%) 부진에서 반등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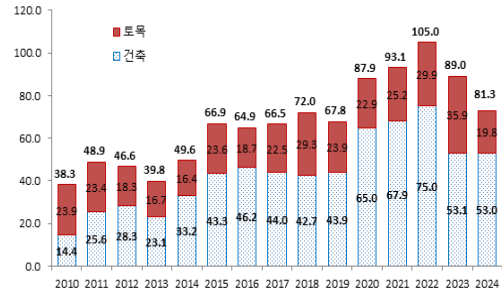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〉 수도권 건설수주 추이

(단위: 조원)



〈그림 2〉 지방 건설수주 추이

(단위: 조원)



자료 : 통계청, 건설경기동향조사

1) 통계청의 '건설경기동향조사' 자료를 사용함. 잠정치로 향후 수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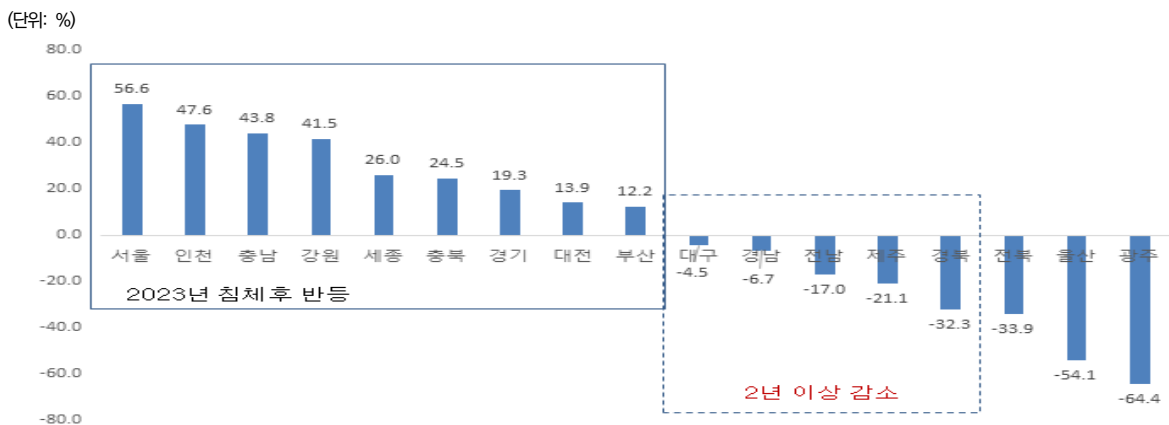
## 2024년 지방 건설수주, 전년 대비 8.6% 감소해 2년 연속 부진

- 지방의 경우 지난 2023년에 15.2% 감소해 부진하였는데, 2024년에도 8.6% 감소한 81.3조원을 기록해 2년 연속 감소한 모습을 보임(〈그림 2〉 참조).
  - 지방 토목 수주의 경우 2023년에 19.8% 증가했지만, 2024년에 21.0% 감소해 8년내 최저치인 19.8조원을 기록,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임.
  - 건축 수주의 경우 2023년에 29.2% 감소하였는데 2024년에도 0.3% 감소한 53.0조원을 기록해 2년 연속 위축된 모습을 보임.

## 세부 지역별로 수도권과 강원과 충청지역 그리고 부산 등이 반등에 성공

- 세부 지역별로 서울, 인천, 충남, 강원, 세종, 충북, 경기, 대전, 부산 등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해 지난 2023년의 침체에서 반등한 모습을 보임(〈그림 3〉 참조).
  - 서울은 토목(+140.9%), 건축(+47.1)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대비 56.6% 증가, 전국에서 가장 강한 반등세를 나타냄.
  - 인천과 충남 또한 토목과 건축 모두 양호해 각각 47.6%, 43.8% 증가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.
  - 강원도는 토목공사(+108.0%)가 양호해서 전년 대비 41.5% 증가하였으며, 세종은 건축공사(+188.0%)가 양호해 26.0% 증가함.
  - 충북, 경기, 대전, 부산도 각각 전년 대비 24.55%, 19.3%, 13.9%, 12.2%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임.

〈그림 3〉 2024년 지역별 건설수주 증감률



자료 : 통계청, 건설경기동향조사

## 대구, 경남, 경북, 전남과 제주는 수주가 2년 이상 감소해 부진 심화

- 대구, 경남, 제주, 전남, 경북 등 5개 지역은 지난 2023년에 수주가 위축되었는데 2024년에도 수주가 감소해 수주 침체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됨.
  - 대구는 전년 대비 4.5% 감소해 4년 연속 수주가 위축되었으며 11년래 최저치인 2.5조원을 기록함.
  - 경남의 경우 전년 대비 6.7% 감소해 수주가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, 5년래 최저치인 6.8조원을 기록함.
  - 전남은 전년 대비 17.0% 감소해 4년 연속 수주가 감소하였으며, 5년래 최저치인 6.5조원을 기록함.
  - 제주는 전년 대비 21.1% 감소해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, 4년래 최저치인 1.3조원을 기록함.
  - 경북의 경우 전년 대비 32.3% 감소해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, 5년래 최저치인 6.5조원을 기록함.
- 한편, 울산과 광주에 경우 지난 2023년에 수주가 크게 증가하였지만, 2024년에는 50% 이상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임.
  - 울산은 지난 2023년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인 샤인 프로젝트(9조원 규모) 수주의 영향으로 114.6% 급등하였지만, 2024년에는 54.1% 감소, 3년래 최저치인 5.7조원을 기록함.
  - 광주의 경우 지난 2023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133.3% 급등하였지만, 2024년에는 전년 대비 64.4% 감소, 3년래 최저치인 3.8조원을 기록함.

## 내수회복 지연시키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 절실, 공공공사 물량 확보해야

-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, 정부가 침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공사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줄 필요가 있음.
  - 정부는 지난 2월 25일 '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'을 발표 철도지하화 사업, 국가산단, GB 전략사업, LH 미분양 매입안 등을 포함하는 등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.
  - 정부가 지역에 침체한 건설산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접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생각되며, 그만큼 지방 건설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음.
  - 다만, 개발사업의 경우 실제 공사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, 당장 올해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가 발굴 또는 예산 배정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  - 대규모 공사가 아니더라도, 2년 연속 수주가 위축된 대구, 경남, 경북, 전북과 제주 등 이렇게 침체가 심화된 지역에 좀 더 공공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, 지역 건설산업에 대해서 추가 검토 및 관련 사업들의 선발주를 유도할 대책, 필요시 민간투자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부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

## '24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276명, 최근 3년간 19.1% 감소

- 전체 사고사망자 수의 43.6% 차지하나, 341명('22년)→303명('23년)→276명('24년) 감소 추세 -

최수영(연구위원 · sooyoung.choe@creik.re.kr)

### 산업재해 '승인통계'와 '조사통계'의 차이

- 고용노동부는 '75년부터 집계·발표해 온 '유족급여 보상승인 통계(이하 '승인통계')' 외에 '22년부터 '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(이하 '조사통계')'을 발표하고 있음.
  - (승인통계)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 '산업재해현황'을 발표하고, '산업재해 분석'을 매년 발간 중임. 사고와 질병, 사망과 부상 등 모든 종류의 산재를 사고 발생일이 아닌 사고 발생 후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집계함.
  - (조사통계)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자료를 사업주 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'사고발생일 기준'으로 집계한 통계임. 사고사망 재해만 집계하여 분기별로 발표함.
- 두 통계에서 집계한 사고사망자 수는 조사 방식 차이로 인해, '23년 기준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승인통계가 356명, 조사통계는 303명으로 53명 차이가 발생함.
  - 승인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았다면 집계되지만, 조사통계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·보건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집계하기에 승인통계의 사고사망자 수가 많음.
  -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건설공사만 대상으로 하는 '건설사고통계'를 집계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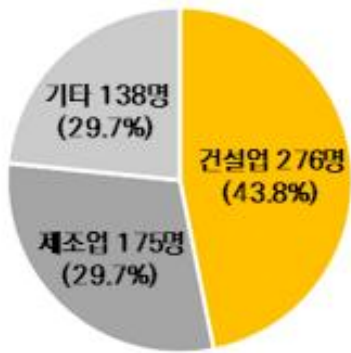
〈표 1〉 산업재해 및 건설사고 통계 주요 내용 비교

| 구분           | 승인통계                | 조사통계      | 건설사고통계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부처           |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|           | 국토교통부     |
| 담당과          |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         | 중대산업재해감독과 | 건설안전과     |
| 건설공사 범위      | 간산법 건설공사 외 타 공사업 포함 |           | 간산법 건설공사  |
| 집계기준         | 산재보험 승인일 기준         | 사고발생일 기준  |           |
| 사고범위         | 사고·질병, 사망·부상        | 사고, 사망    | 사고, 사망·부상 |
| '23년 사고사망자 수 | 356명                | 303명      | 244명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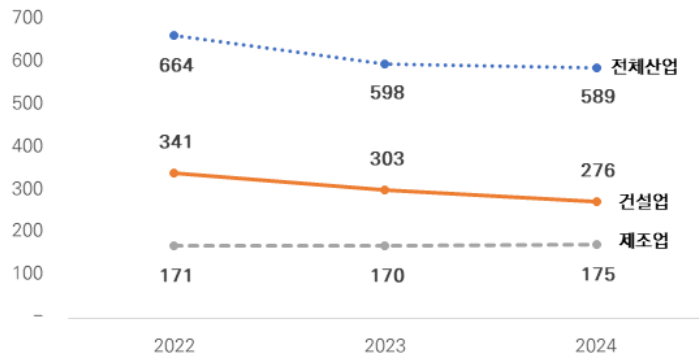
## ❖ '24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276명<sup>2)</sup>, '22년 이후 감소 추세

- 고용노동부 조사통계에 따르면, '24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276명으로, 전체(589명)의 43.8%를 차지하였으며, 이는 '22년 사고사망자 수(341명)보다 65명 감소한 수치임.
- 건설산업의 사고사망자 수 비중은 '22년(51.4%)과 '23년(50.7%) 전체의 절반 이상이였으나, '24년 43.8%로 줄어들음. 사고사망자 수 또한, 341명('22년) → 303명('23년) → 276명('24년)으로 감소 추세임.

〈그림 1〉 '24년 산업별 사고사망자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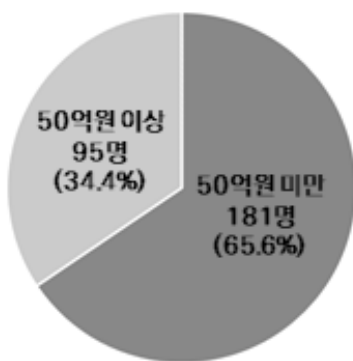


〈표 2〉 전체산업 및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 변화('22년~'24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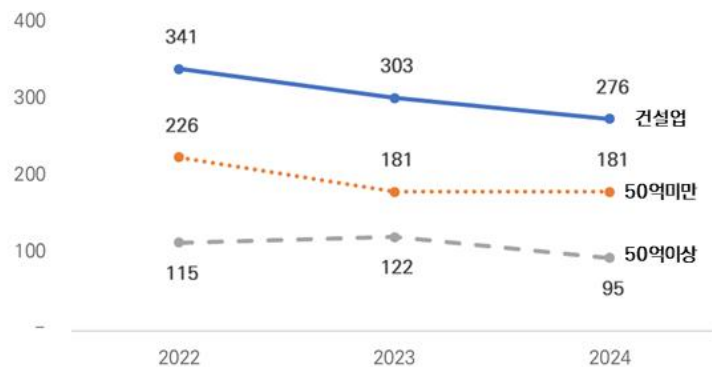


- 건설업 규모별로는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65.6%(181명)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는 '24년 100명 미만을 기록함.
- 50억원 미만 건설사업 사고사망자 수 비중은 '22년 66.3%에서 '23년 59.7%로 줄어들었으나, '24년 다시 65.6%로 증가함.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115명('22년) → 122명('23년) → 95명('24년)으로 감소함.

〈그림 2〉 건설업 규모별 사고사망자 수



〈표 3〉 건설산업 규모별 사고사망자 수 변화('22년~'24년)



2) 지난 3월 11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'24년 조사통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. '24년 승인통계는 원고 작성 시점에 발표되지 않음.